

# “AI산업 활성화·국가산단 유치” 광주·전남 건의 봇물

## 李대통령 ‘국가균형발전’ 타운홀미팅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국가균형발전 핵심 동력으로 ‘국가산단 유치’와 ‘재생에너지 연계 전력망 구축’, ‘AI 인프라 확충’ 등 광주·전남지역 건의가 쏟아졌다.

이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된 타운홀미팅을 통해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전력계통 포화 문제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태양광 발전 단기는 이미 1㎾당 150원 수준까지 낮아졌고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평 규모의 부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계통이 연결되지 않아 데이터센터조차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계통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가 일반 고속도로 건설처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5%를 보조하는 등 재생에너지 송배전 구축에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도 “호남 지역은 햇빛과

광역 전력망 조기확충 에너지고속도

무안 북부·순천·광양 국가산단 지정

AI2단계 예타면제·인재양성센터 요청

‘AI모빌리티 신도시’ 정부 지원 촉구

李 “수도권과 함께 균형발전 최선” 약속

바람이 풍부해 재생에너지가 넘쳐나지만 수도권으로 송전할 수 있는 계통은 현재 두 가닥에 불과하다”며 “8GW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선 최소 203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소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산단 지정 요구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무안군 북부권 개발 구상을 제시하며 “공항 이전과 연계한 신도시 조성과 국가산단 유치는 침체된 북부권 활성화는 물론, 인센티브와 연계한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 AI산업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 AI 데이터센터 1단계가 마무리돼 900개 기업이 활용 중이며 삼성과 국내외 기업들도 실증 중”이라며 “2단계 사업 (6천억원)은 과기부, 기재부 등과 조율을 마쳤고 예비타당성 면제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고 인재양

성 트레이닝센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상진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도 “AI 인프라 추가 기동을 위한 2단계 사업이 절실히다. 향후 5년간 6천억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담보 상태로 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오 단장은 “컴퓨팅 리소스 수요가 7대1에 달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공급이 떡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또한 당연히 AI 생태계가 조성된 광주로 와야하는데 입지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광주시 대선공약인 ‘AI 모빌리티 신도시’ 관련, 강 시장은 “광주는 현재 산업단지 대부분이 포화 상태로 진공산단을 중심으로 AI와 모빌리티를 결합한 300만평 규모의 ‘AI모빌리티 신도시’, 일명 에모시티(EMO-City)를 조성 중”이라며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은 “중국 등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미래차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실증 기반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송정 지역주택조합 파산 위기, 12·29제주항공 참사 진상 규명, 광주·순천 KTX 연결, 전통시장과 식문화 산업 지원,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 일극체제, 수도권 집중 등 일부라도 완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겠다 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며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용하고 해결 가능한 것은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접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전력계통 해소 요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이 수용하면 가능하지만 (산단) 개발만 해놓으면 다 입주할 것이라는 전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리면서 이 대통령은 “개발 허가 해서 산단 물량 배정하고 기반시설만 갖추게 해준다고 해서 기업이 출서서 들어올지 의문인데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많은 시사점도 있고 가능성도 찾아냈다. 가능한 시일 내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한의 역량을 발휘해 지역이 수도권과 함께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李대통령, 현직 최초 국립 소록도병원 방문

김혜경 여사 “대선 뒤 오겠다” 약속 지켜

한센인 위로 “들은 말씀 정책 반영 실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소록도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들을 만났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달 27일 김 여사가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한 약

속을 지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으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이에 대해 29년째 소록도병원을 지키고 있는 오동찬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먼 길을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 처

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한국은 1980년대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 금지 등 차별과 고통의 역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 광주시, 400만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

스마트 유리설비 제조 3자간 MOU

광주시가 총 400만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내 단열 및 특수유리 가공설비 제조기업(주)아이지스, 오스트리아 유리 가공설비 전문기업 라이섹(Li SEC GmbH)과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미래형 산업 유치와 지

역 경계 활성화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온 성과로 (주)아이지스는 광주 첨단산업단지에 스마트팩토리 기반 차세대 유리 가공설비제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총 투자 규모는 400만달러(한화 약 40억원)이며 신규 고용 인원은 10명이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남진 아이지스 대표이사와 안나 탄엘리·김새봄 라이 сек코리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해당 제조시설은 오는 7월 착공해 1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들 회사는 광주시를 투자지로 선택한 이유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제조 생태계, 우수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인프라), 산업단지와 연계된 기술 지원체계 등을 꼽았다.

광주시는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연구지원 플랫폼 등 첨단 제조환경을 바탕으로 첨단3지구와 빛그린산단 등 전략산업 거점을 연계해 스마트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투자 실행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생산 기반 기술 인프라 안내 ▲조세 감면 및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특전(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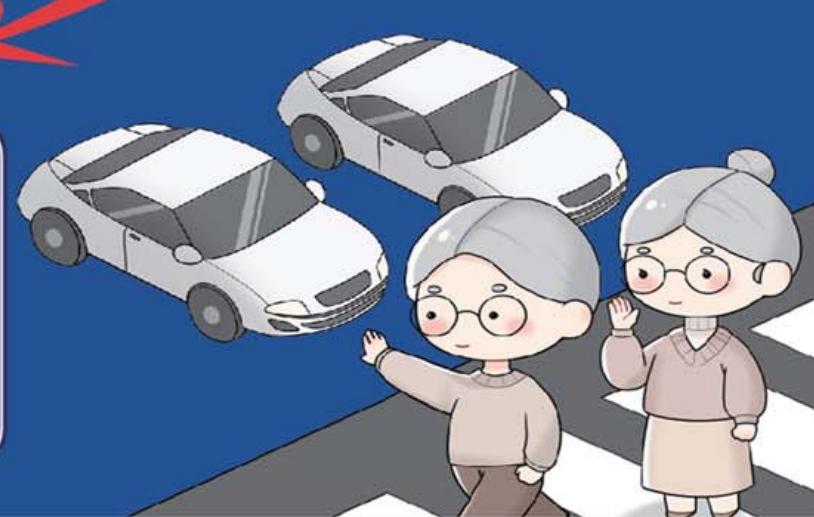
/변은진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 이제, 우리마을 교통안전은

# 차만손

도로를 건널때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횡단의사 표시해요



##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1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2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3 우리나라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4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